



# 위대한 경도, 불멸의 70성상

##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신 그 업적 천만년 길이 빛나리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더듬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의 새로운 전략적 로선 관찰에 부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렬한 호소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의 대오에 세찬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방된 조국평원에 성스러운 그 이름이 높이 뿐이며 헌신한 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70돌기의 날을 깨고 있다.

추억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얼마인가.

해방조국의 하늘가에 백두산천지에서 세주도 물까지 새 기발 놀이에 참관만은 나섰다는 노래가 힘 있게 울려 퍼져며 뜻깊은 그 나날들이 눈 앞에 생생히 어려온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국가건설사상과로 속하고 새련법령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역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조국으로 진정한 조국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었으며 세기적으로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로 행사를 일컬어온다.』

반민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금수강강, 술기고 근면한 인민이 일체의 발달로 절실히 장장 수십년, 끼는 눈물로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는 약소국의 유품을 머리에 저미나니 이 국의 희외장에서 선혈을 뿐하고 국제경기에서 우승했어도 제나라가 없는 술집으로 가슴을 쳐야 했던 비참하고 치질한 비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지만 갈망이 끈 험실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전정한 인민의 나

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 하시면서 자주적으로 혁명을 살펴는 우리 인민의 철학 한 손과 냉면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70년, 전정 그것은 인민을 향한 철학 내세우고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며 인민들에게 가장 값진은 삶을 안겨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로 및나고 있다.

정진한 인민의 나라,

새겨볼수록 우리의 가슴마다에 끄켜온 추억의 파도가 불결쳐온다.

해방의 만세소리가 조국강도를 뛰어넘는 한때 조선민주인민은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일컬어주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 앞에 나서시는 것을 세우르지 않으셨다.

더향의 차이 찬 눈비를 맞았으 시며 혁전의 수선수단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한시미비 언제 한번 익은 속 없는 고할침에서 사랑하는 조부모님들과 풋걸음을 삼봉하고 하시며 인민과도 인사를 나누고 싶으셨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영활한 보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의 낫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해방된 조국에 서 들고나가야 할 건국로선을 밟혀서 민족의 우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듯싶다.

그리면 해방된 조국에서는 어떤 정권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 나라는 일제의 종족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므로 오래동안 식민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

나타난 조선민주인민은 의연히 반

제반봉건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하며 한 번에 나서서 되며 주진봉제에 있어서는 천 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제3세 조선인민의 력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령해야 할

파업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 나

라에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무장하고 자주적인 우리식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 데 대한 이로선은 조선이 나아갈 길을 막혀 준 동대였고 인민의 새 나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제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전국대강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있어서 혁명이란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을 풋여우는 사임이었다. 하기 위해 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에 대한 군본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하나의 일자 못할 이야기가 있다.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을 위한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때에 있을 일이다.

회사를 누구한테 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회의 첫 순서가 개회사인 것처럼 끊임하게 연설할 수 있는 일군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회의 중요성과 그 력사적인 의의로 보아 혁명정령이 있어서 일정한 직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맡은 일군들을 개회사를 두고 둘의 력을 거듭하였다.

&lt;p







##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얼마전 역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전개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것은 자주통일임무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일어놓은 민족자주사변이다.

판문점선언은 온 민족의 의사와 네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와의 지향에 절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운동의 통일방향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계획은 판문점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나감으로써 민족의 속임당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의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자진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온 계획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보나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보나 지역에 정당하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전시하는 것은 계획의 지향과 네원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원칙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온 계획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보나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보나 지역에 정당하다.

계획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훨씬 일어나가는데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와 외세의 존은 민족유 비관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 독소이며 미국의 길이다.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민족여러주의에 빠지면 사내주의를 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계획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통일의 의의에 맞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 격동적인 사변들도 가능한 6·15 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파 방해세 등이 이루어 악랄해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전시하는 것은 조국통일임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 자체의 의지와 간섭을 넘어서 더 있고 천민족적 민족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세에게 빠져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실질로 어려운 사업이다.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의 원칙을 배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출발을 향하고 힘과 힘을 가진다.

우리에게는 시대와 외세의 혼용을 헤치지 않아 민